게임위보다 무서운…누리꾼!

'암살자 모집' 문구 비난에 급거 광고 중단
'업체직원 불법물 단체구입' 폭로에 파문도
업계, 눈·손 빠른 네티즌들 눈치보기 심화

완성도 높은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게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어렵다. 최근 들어 게임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나오다 보니 좀더 튀는 홍보와 이벤트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게 다반사가 됐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각 업체에는 누리꾼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내부 직원이나 협력 업체의 실수는 물론 튀는 언행으로 인해 크고 작은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발 빠른 누리꾼들의 눈과 귀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암살 전문가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누리꾼들의 원성을 샀다. 국내 굴지의 한 포털 업체가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에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된 것을 홍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문구가 담긴 광고를 선보인 것이다. 이 광고가 노출되자마자 누리꾼들의 원성과 지탄이 쏟아졌다. 포털에서는 급거 광고를 중단했다.

이어 불과 보름 뒤인 지난달 30일 한 누리꾼이 국내 유명 비디오게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또 다시 큰 파장을 불렀다. 이번에는 '국내 유명 개발사 불법게임물을 단체로 구입'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국내 유명 개발사 직원이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DS 라이트'(이하 NDSL)에서 불법 복제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기기를 단체로 구입했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링크를 공개한 것이다.

해당 글이 등록된 지 2시간 만에 조회수가 9000건을 넘어섰고 200여건의 댓글이 꼬리를 물었다. 내용을 접한 한 누리꾼은 "앞에서는 정품 사용을 권장하면서 내부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라며 개탄했다.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NDSL용 게임 복제 실행기기를 구입한 당사자는 "자진 사퇴로 개발사와 게이머들에게 사죄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지만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3일에는 해외 대작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인 한 업체에서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내에서 차기 대선 주자의 인기투표 결과를 홍보자료로 배포해 눈총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 주자를 검색했을 때 자사의 게임이 노출되거나 게임 내 간접광고(PPL) 등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게임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누리꾼들은 '양날의 칼'이다. 몇몇 게임 업체에서는 자사의 고객들에게 무료 해외 사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실정"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김성대기자 0702@nocutnews.co.kr

하나포스 고객 초청 '비보이 공연' 행사

하나로텔레콤(대표 박병무)은 지난 6일 저녁 서울 홍대 '비보이 전용극장'에서 열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에 자사 고객 300명을 초청, 문화체험 이벤트를 열었다. 비보이 팬 사인회·기념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내용이 곁들여진 이날 이벤트에서는 참가 고객들에게 공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20·30대도…"영상통화 필요없다"

SBS 러브FM '뉴스앤조이' 설문
67·55% "불필요" 평균 51%보다 오히려 높아

국민의 과반수는 영상통화 서비스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차세대 통신서비스로 영상통화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SBS 러브FM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1%가 영상통화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8.9%에 불과했다.

불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부산·경남 지역(61.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서울(58.6%), 전북(46.6%), 인천·경기(48.3%), 대구·경북(45.7%) 순으로 화상통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성별로는 여성(53.9%)이 남성(48.1%)보다 영상통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한 이동통신 이용률이 높은 20·30세대도 영상통화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0대가 66.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54.8%), 40대(47.5%), 50대 이상(29.0%) 순으로 낮았다.

반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0대가 36.8%로 가장 많았고 30대(29.3%), 50대 이상(29.0%), 20대(20.0%) 순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4월 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7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8%였다.

김성대기자 0702@nocutnews.co.kr

'액트 8' 업데이트…스킬 추가·능력치 조정

온라인 액션게임 '던전앤파이터'(www.d-fighter.com)가 지난 5일 '액트 8 어둠을 먹고 피는 꽃'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액트 8'에서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내용의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개편이다. 스킬과 능력치의 개편이 적용된 스트리트 파이터는 기본 능력치 조정 외에 크레이지발칸, 베놈마인 등의 스킬이 추가되어 좀더 다양한 콤보 플레이가 가능하다.

상태 변화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이뤄졌다. 레벨이 높은 상대에게는 스킬효과가 감소하며 낮은 상대에게는 반대로 증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신던전인 '유혹의 마을 하멜론'도 선보였다. 고레벨 던전으로 '타락과 도둑'과 이어지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유혹의 마을 하멜론'은 매드니스 단원들과 떠돌이개가 등장하며, 보스로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피터 파이퍼'가 등장한다.

이글루스 인사이드

사라진 블로거들은 어디로…

내가 블로그를 연 지 어느덧 3년3개월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글도 많이 썼고 수많은 분들의 블로그를 RSS리더기에 추가하기도 했다.

그게 인연이 되어 어떤 경우는 오프라인의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개중에는 품고 있는 생각이 너무 비슷한 나머지 하루 12시간을 붙어 있었는데도 화제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도 있다. 그런 때는 참으로 블로그 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다.

그런데 상당한 시일이 흐른 지금 그런 분들 중에서 블로그를 아예 폐쇄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혹은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한때 그토록 친하다고 믿었고 지속적으로 알고 지낼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소식 없이 블로그를 방치하고 연락조차 안 되면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

인터넷으로 쌓아놓은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 이런 것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조금 성급한 결론일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리라 믿고 싶다.

앞으로 또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른다. 나 자신도 이렇게 장기간 블로그를 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3년 뒤에도 이것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 말이다. 언젠가는 말없이 블로그를 폐쇄하고 블로그 커뮤니티에서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미 얼마 전 그런 위기를 겪었다.

어쨌든 블로그를 하는 동안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아울러 지금 잠수 중인 블로거들에게 하는 일 모두 잘 되고 몸 건강히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 전한다.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복귀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encore.egloos.com

IT브리핑

'클릭스' 구매땐 무제한 이용권

음악사이트 쥬크온(www.jukeon.com)은 '클릭스' 구매 고객에게 3개월 무제한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하면 클릭스를 정상 가격보다 최대 31%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쥬크온 3개월 무제한 이용권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무제한 이용권은 MP3를 곡수 제한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음악 상품으로, 쥬크온과 아이리버 전용 프로그램인 플러스3에서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허동구' 게임하면 시사회 티켓

'테일즈런너'는 16일까지 영화 '날아라 허동구' 이벤트를 실시한다. '테일즈런너' 홈페이지의 '동구 초등학교 졸업하기' 미니 게임에서 임무를 완수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0명의 유저들에게는 무료 시사회 초대권을 2매씩(총 300매) 나눠준다.